

가족기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ffect of Family Function on the School Life Adaptation : The Mediating Effect of self-identity

권수정*, 이현주**

동의과학대학 사회복지과*, 김해대학 사회복지과**

Soo-Jung Kwon(javajib@hanmail.net)*, Hyun-Ju Lee(kgade@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가족기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과 부모세대(학부모)의 의식 및 가치관을 조사한 가족의식에 관한 패널을 사용하였고, 연구대상은 청소년 6,979명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하였고, AMOS를 사용하여 요인분석, 경로분석을 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기능의 하위변인(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 매개변인인 자아정체성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교사적응, 친구적응, 공부몰입)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청소년의 가족기능은 자아정체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기능은 학교생활적응에 자아정체감을 매개하지 않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간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 청소년 개인의 자아정체감 확립이라는 발달적 과업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중심어 : | 가족기능 | 가족응집성 | 가족적응성 | 학교생활적응 | 자아정체성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family functioning and self-identity as a mediating effect on the impact of school life adaptation were investigated. This aspect of the study, panel survey was used to researchers from the Korea Youth Policy and their parents of about the consciousness and family awareness, the youth of 6, 979 people. Youth Policy Institute of Korea analyzed the panel. frequency using SPSS program, AMOS using factor analysis, path analysis was performe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the family of functions of the sub-factors and school life adaptation sub-factors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each other. Second, the youth's family function in school life adaptation had a significant impact which parameters, excluding self-identity. Third, the family functions as a self-identity parameter had a significant impact on school life adaptation.

■ keyword : | School Life Adptation | Self-identity | Family Function |

I. 서론

청소년에게 있어 가족과 학교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앞으로 나아갈 사회에서 필요한 규범과 역할을 배우는 곳으로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있어 중요한 곳이다. 가정은 일차적 생활환경으로 경험 및 인격형성의 장소인 동시에 개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로 매우 중요하다.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부모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통하여 정서적 발달과 인지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 또는 학교 부적응 증·감소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37].

가족기능은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인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족의 기능성이 기능적일 때 청소년의 대인관계는 독립-책임적, 동적-수용적, 사교-우호적 성향이 강하며, 반항-불신적 성향이 낮아졌다[31]. 또한, 가족의 기능이 원활할수록 개인의 인성은 활동적이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었다[28]. 그리고 가족기능에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은 청소년은 높은 학교생활적응능력을 보였다[5]. 또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은 가족의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가족의 청소년들보다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35]. 가족적응성이 높은 가족은 문제 상황에 성공적 대응을 하고 자녀의 성격형성[1][14]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가족기능이 학교생활적응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아정체성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아정체감도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도 긴밀한 관계에 있다.

가족기능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가족기능이 높은 가족에서 성장한 아동들은 가족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9]. 이러한 가족의 형태나 물리적 요인 이외에도 가족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중심을 한 가족기능도 아동의 정서적·행동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크다고 할 수 있다[9][43]. 반대로, 역기능적 가족은 가족의 생활주기가 바뀌거나 생활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가족원들의 행동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아동의 불안, 과잉행동, 회피행동과 같은 부정적 행동을 나타낼 뿐 아니

라, 가족구성원의 의식, 태도, 가치관, 이해관계가 대립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호관계가 고립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2][7][17][18]. 이와 같이, 가족기능과 관련한 연구들은 가족의 기능적인 측면과 역기능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가족 구조적 및 상호작용적인 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주목하여 왔다. 그리고 가족기능과 주요 변인간의 직접적 관계에만 언급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능이 주요변수에 간접적 영향을 주는 경로를 파악하였으며, 또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학교생활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알아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가족기능과 학교생활적응, 그리고 자아정체성이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자아정체감은 이러한 두 변수 간에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기능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학교생활적응이란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바람직한 사회적, 정서적 행동을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11][12]. 학교적응이 단일 개념이라기보다는 복합적 개념으로 연구자에 따라 학교에 대한 흥미, 학업성취에 대한 태도, 학교규범준수 영역[15]이나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및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영역[16]으로 개념화된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이 가족과의 상호작용이나 관계형성에 기초하고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나 부적응 상황으로 유도하는 일차적인 원인이 가족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가족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요인으로 가족의 구조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 관계적인 측면 등의 여러 요인들이 연구되어 왔다[10][16][36][40]. 그 중 가족기능은 가족이 어떤 정해진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 또는 가족구성원들에게 맡겨진 모든 작용을 하는 것[21]으로, 가족기능은 응집성과 적응성이라는 두개의 차원에서 살

퍼볼 수 있다. 가족응집력은 가족구성원이 가족체계 내에서 경험하는 개인적 자율성의 정도를 의미하며, 가족구성원들 간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이다[19]. 또한 가족적응력은 가족구성원이 새로운 균형과 적합성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의미하며, 또한 가족 내외적인 필요와 목표에 따라 가족의 규칙, 역할 및 전략을 변화시키는 정도를 의미한다[42].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정적관계에 있다.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은 아동은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처럼, 가족기능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친구와 교사와의 원만한 관계유지와 활동적이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주요 변인이다.

2. 가족기능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변인인 자아정체감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은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다 [26][32]. 자아정체감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생각으로[39], 개인의 내적 탐색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12]. 청소년기 동안 ‘나는 누구이며 미래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탐색적 물음에 답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며,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 자신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전망을 제시해준다.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들을 하게 된다 또한 주위의 사람들과 원만하고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처럼 자아정체성 형성 여부는 청소년 개개인의 건전한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활적응에도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자아정체성과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안정적이며, 학업성취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부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교사나 또래관계에서 부적응을 나타내며,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34][38]. 또한 자아

정체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자아정체성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에 직면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여 자신들의 학교생활 전략을 스스로 모색해 나가는 노력을 한다[25].

이처럼,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은 중요한 과업이며, 학교생활적응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자아정체감을 매개변인으로 가족기능과 학교생활적응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기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가족기능이 직접적으로 학교생활적응으로 이어지는 경로, 가족기능이 자아정체성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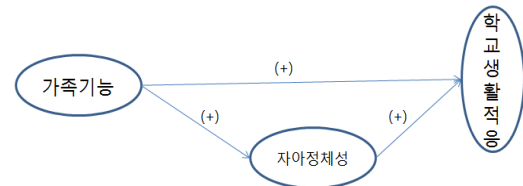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한국사회 세대문제의 영역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과 가정생활 관련 청소년과 부모세대(학부모)의 의식 및 가치관을 조사한 가족의식에 관련된 패널을 활용하여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¹⁾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법(stratified multi-stages clusters sampling)으로 청소년들 및 보호자를 자기

1) 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0년 조사한 가족의식패널을 활용하여 분석함.

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되었다.

3. 측정도구

3.1 가족기능

가족기능은 Olson 등[41]의 FACES(family adaptability cohesion evaluation)-III를 우리 실정에 맞게 변안한 김윤희[8]의 척도에 기초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한 간이척도를 활용하였다. 가족기능 척도는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의 두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각 10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응집성(family cohesion)은 개인의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가족원들이 서로에 대해서 갖는 정서적 유대 정도를, 가족적응성(family adaptability)은 가족원이 처하게 되는 상황적 또는 발달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긴장에 대처하여 가족관계의 역할이나 규칙, 가족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가족응집성 .896, 가족적응성 .694로 나타났다.

3.2 자아정체성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 측정은 Erikson(1968)의 정의에 기초하여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허정철[33]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주체성과 미래확신성의 두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진 총 9개의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60로 나타났다.

3.3 학교생활적응

청소년들의 가정배경 및 가족의식·가정생활 특성이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20][22]의 조사문항을 참고하여 학교생활 적응 척도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와의 관계, 학교친구와의 관계, 학교공부 몰입도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적응정도에 관한 총 13개의 문항에 대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교사적응 .892, 친구적응 .821, 공부몰입 .78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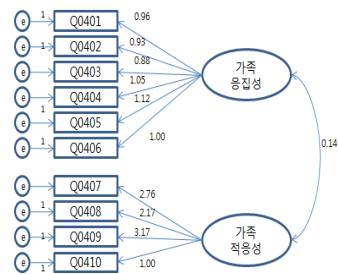
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통계기법은 연구목적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AMOS 18.0과 SPSS 1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구성개념간의 이론적 관계와 상관성의 측정지표를 통한 경험적 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된 통계기법이다[3].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모형을 구성하는 모수의 추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적합도와 변수들간의 직접 및 간접효과를 분석하고자 할 경우에 유용한 분석이다.

IV. 분석결과

1. 측정모형분석

구조모형의 분석에 앞서 측정변수로 사용된 또래애착의 잠재변수 3가지 변수와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잠재변수로 사용된 4가지 변수의 각각의 지표들을 이론적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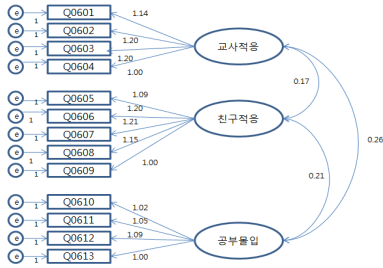


$\chi^2 = 1770.015$ $P = 0.000$ $df = 34$ $CIF = 0.946$ $TLI = 0.913$ $RMSEA = 0.086$

그림 2. 가족기능의 요인적재량과 적합도

가족기능에 대한 결과는 [그림 2]와 같이 요인적재량은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하였다. $\chi^2 = 1770.015$ $P = 0.000$ $df = 34$ $CIF = 0.946$ $TLI = 0.913$ $RMSEA = 0.086$ 로 적합한 적합도라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적응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인적재량은 유의수준 0.001

에서 유의미하였다. $\chi^2 = 2612.652$ $P = 0.000$ $df = 62$ $CIF = 0.938$ $TLI = 0.910$ $RMSEA = 0.077$ 로 적합한 적합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두 측정모형이 자료를 잘 적합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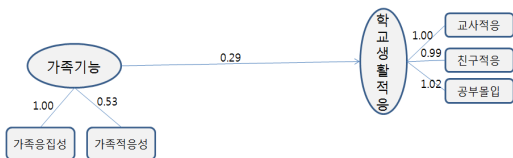


$\chi^2 = 2612.652$ $P = 0.000$ $df = 62$ $CIF = 0.938$ $TLI = 0.910$ $RMSEA = 0.077$

그림 3. 학교생활적응의 요인적재량과 적합도

2. 연구모형분석

연구모형 분석은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기능, 자아정체성,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그림 1]에서 설정된 영향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모형은 자아정체성의 매개변수 없이 가족기능이 직접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chi^2 = 14.716$ $P = 0.000$ $df = 4$ $CIF = 0.998$ $TLI = 0.993$ $RMSEA = 0.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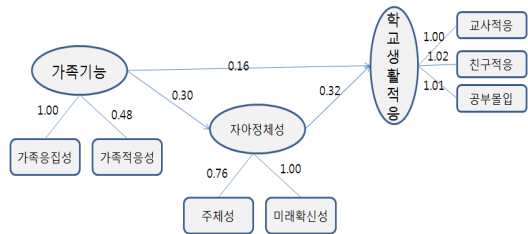
그림 4.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기본모형 분석

분석결과 [그림 4]와 같이 경로계수에 대한 추정치가 제시되었으며 [표 1]의 잠재변인간의 경로계수로 보듯이 청소년의 가족기능→학교생활적응은 매개변수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을 때 경로계수가 .029로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잠재변인간의 경로계수

모수	모수 추정치	S.E.	C.R.	P
가족기능 → 자아정체성	0.299(0.455)	0.015	19.424	***
가족기능 → 학교생활적응	0.162(0.299)	0.013	12.881	***
자아정체성 → 학교생활적응	0.322(0.392)	0.019	12.607	***

다음으로 매개변수를 모두 포함한 완전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5]에서 경로계수에 대한 추정치가 제시되었다. 두 가지 경로 즉,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기능→자아정체성→학교생활적응은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기능은 직접적으로 학교생활적응력에 영향을 미치고(.299), 자아정체성을 매개하여 학교생활적응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179).



$\chi^2 = 182.251$ $P = 0.000$ $df = 11$ $CIF = 0.981$ $TLI = 0.951$ $RMSEA = 0.026$

그림 5.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모형분석

표 2. 모형분석의 효과 분해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가족기능→학교생활적응	0.292		0.292
가족기능→자아정체성→학교생활적응	0.299	0.178	0.477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 첫째, 가족기능의 하위변인인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 자아정체성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의 교사적응, 친구적응, 공부몰입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둘째, 청소년의 가족기능은 매개변수

자아정체감을 제외하고도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기능의 응집성과 적응성 요인 모두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김명덕[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가족기능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한다는 결과 이정송[24]과도 일치한다. 또한 가족기능의 하위요인 중 가족응집력은 학교생활적응과도 정적관계를 가진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30].

셋째, 가족기능은 자아정체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지만 자아정체성을 매개하여 학교생활적응을 간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기능이 높아지면 자아정체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적응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아정체성이 학교생활적응에서 또래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을 이룬다. 자아정체성이 바르게 형성된 청소년들은 심리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심리적 위기도 잘 대처해가며, 어떠한 어려운 상황의 위기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6]. 또한, 학교생활적응과 자아정체성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27]. 자아정체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은 자기수용성과도 높은 상관을 보이며,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간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 청소년 개인의 자아정체감 확립이라는 발달적 과업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후속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의 기능과 자아정체감을 포함하였으나 차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을 알아보았으나 다음 연구에서는 면접 등의 다양한 방법과 부모 및 교사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고승자, *가족체계 상호작용유형과 청소년의 성격 차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2] 고정자, “청소년의 개인변인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변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제7호, pp.121-143, 2003.

[3] 김계수,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래, 2004.

[4] 김명덕, *가족기능이 청소년 문제행동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5] 김미희,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 유형과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6] 김민자, *일반 및 시설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지위와 환경지각에 관한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7] 김영희, 안상미,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2호, pp.1-13, 2008.

[8] 김윤희, *부부관계, 부모-자녀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자녀 비행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9] 김주연, *가족기능에 따른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0] 류경희,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제12호, pp.147-168, 2003.

[11] 문은식,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된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분석*,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12] 민하영, 권기남,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제25권, 제2호, pp.81-92, 2004.

- [13] 박영란,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학교 적응 및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14] 박장희, 정옥분, “복합순환 모델에 의한 가족체계 유형과 청년기 자아정체감 발달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제10호, pp.49-63, 2002.
- [15] 박현선,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 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16] 배숙진, *청소년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개념, 학교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17] 신귀순, *가족의 기능에 따른 아동의 자기역량지각과 대인관계성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18] 엄명용, “아동의 부적응 행동 및 가족 기능 양상과 가족체계 유형과의 상호관계”, *한국사회복지학*, Vol.32, pp.235-266, 1997.
- [19] 오선영, 송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가족기능 및 세대간 결속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Vol.6, No.1, pp.125-138, 2012.
- [20] 이경숙, *초등학생 과외학습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21] 이금재, *만성질환자의 가족기능정도와 환자역할행위 이행정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22] 이미자, *초등학교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과의 관계 및 조절효과 탐색*,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23] 이은주, *가족기능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갈등 해결 전략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24] 이정송, *가족기능성과 자기효능감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25] 이종연, 이재신, “괴롭힘 경험을 가진 학생들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교육연구논총*, 제4권, pp.47-75, 2000.
- [26] 이현립, 천미숙,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4호, pp.511-514, 2003.
- [27] 이희정, *다문화가정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충청북도거주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 [28] 윤찬정, *가족의 기능성과 개인의 인성특성과의 관계연구*, 영남대학교 상담심리 전공 석사학위논문, 1995.
- [29] 임성윤, *중학생이 지각한 가정환경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30] 임영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및 가족응집력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31] 이문행, *가족의 기능성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 [32] 조미란, *중고등학교 학생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33] 허정철,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10권, 제3호, pp.123-147, 2008.
- [34] 현희순, 김양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제20권, 제1호, pp.249-262, 1999.
- [35] 홍성애, *가정환경과 가족체계 상호작용 유형이 청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8.
- [36] G. C. Armsden and M. T. Greenberg,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16, No.5, pp.427-453, 1987.
- [37] J. Cassidy, S. Kirsh, K. Scolton, and R. Parke, “Attachment and representations of pe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2, pp.892-904, 1996.

[38] S. A. Erath, K. S. Flanagan, and K. L. Bierman, "Early adolescent school adjustment: Associations with friendship and peer victimization," *Social Development*, Vol.17, No.4, pp.853-870, 2008.

[39] E. H. Erikson,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Co. 1968.

[40] L. A. Kurdek, M. A. Fine, and R. J. Sinclair, "School adjustment in six graders : Parenting transistions, family climate, and peer norm effects," *Child Development*, Vol.66, pp.430-445, 1995.

[41] D. H. Olson, J. Porter, and Y. Lavee,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St Paul, Minn: University of Minnesota. 1985.

[42] D. H. Olson and H. L. Barnes,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 The Circumplex Model," *Family Process*, Vol.56, pp.438-447, 1986.

[43] M. K. Richmond and C. M. Stocker,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parents' hostility and siblings' externalizing behavior in the context of marital discor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22, pp.231-240, 2008.

이 현 주(Hyun-Ju Lee)

정회원



- 2007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박사 수료(사회복지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김해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관심분야> : 노인, 아동, 가족, 정신건강

저 자 소 개

권 수 정(Soo-Jung Kwon)

정회원



- 2010년 2월 : 경성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수료(사회복지학 석사)
- 2009년 8월 ~ 현재 : 동의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 외래강사

<관심분야> : 아동, 청소년, 교육